

2016. 7. 28(목) 배포 | 2면

담당과: 해당언론사

노동당 인천시당: 032-578-9621 <http://incheon.laborparty.kr>

대변인: 장종인 (010-3917-5817) | 사무처장: 장시정 (010-9084-6806)

[보도자료]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, 안전사고 모니터링 나선다

노동당 인천시당,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나선다

**-2호선 27개 역에 신고현수막을 부착하고 한 달 간 제보 접수-
-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에 집단민원을 제기 예정-**

○ 노동당 인천시당(위원장 이근선)이 오는 7월 30일 개통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의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실시한다. (기간: 2016. 7. 30 ~ 8. 31)

○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인천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비약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본다. 하지만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가벼운 차체, 잦은 곡선구간에도 불구하고 시속 80km의 고속운행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시민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. 그동안 고속운행으로 인한 승차감 저하, 시운전기간 각종 사고와 잦은 고장 등 무인운전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성 문제는 물론 무리한 인력감축과 전체 인력의 22%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.

○ 노동당 인천시당은 개통 후 각 역사에 시민들이 불편, 사고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현수막을 부착하고 한 달 간 시민불편과 안전사고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. 직장인들의 휴가가 끝나는 시점인 8월 8일부터는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(검암역, 주안역, 인천시청역)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제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. 이와 함께 카카오톡, 페이스북(<http://www.facebook.com/inline2>)을 통해서도 불편과 사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.

○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지하철 2호선의 시범운영 때부터 비용절감과 효율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인력확충을 통해 촘촘히 관리될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. 고속운행으로 인한 승차감 저하, 시운전기간 각종 사고와 잦은 고장 등 무인운전에 대한 불안감과 안

전성 문제는 물론 무리한 인력감축은 인천지하철 2호선의 안전에 구멍을 만들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해 왔다. 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이 시민의 발로써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.

○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제보 계획

-기간: 2016. 7. 30 ~ 8. 31

-제보: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

-방법: 페이스북, 카톡, 인천시당 전화

-시민홍보: 현수막, 카카오톡, 페이스북 페이지

-환승역 제보 접수: 8월 8일부터 검암역, 주안역, 인천시청역

-문의: 노동당 인천시당(032.578.9621)

○ 첨부

1. 카카오톡 제보 안내
2. 페이스북 제보 안내